

4장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제 4 장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 1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 2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 3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 4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 5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 6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 7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알고

- 8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 9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 10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 11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 12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 13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 14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 15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 16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 17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한 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 18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 19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 20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21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
제를 사랑할지니라

서 론

거짓 가르침들이 활개를 칠 때에는 진리의 확실한 시금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금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에 관한 [참된 그리스도론]**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믿음이다. 요한은 예수님께 가장 많이 사랑받은 제자로 또한 그 사랑에 반응한 자로 사랑이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다. 2장에서 요한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 함으로 사람들과 함께 거닐고 생애하신 인류의 친구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기름부음을 받은 자’ 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 있게 선포하였다. 이것으로 [그리스도의 신성] 곧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증거 하였다(2:22).

본 장(4장)에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 함으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한결같이 모든 일에 시험 받으신, 그래서 시험 받는 인류를 어떻게 도우실지 아시기 위하여 우리와 동일한 입장을 취하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 곧[그리스도의 인성]을 증거한다 (4:2,3).

이것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목격한 증인 요한에 의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배우게 된다. 그는 요한의 증언과 같이 ‘**참 하나님**’ 이시요 **참 인간**, 다시 말하면 ‘**완전한 하나님**’ 이시며 ‘**완전한 인간 예수**

이신 것이다. 이러한 참된 그리스도의 본질 곧 참된 그리스도론을 깨닫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애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 이기 때문이다.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서 우리는 그분을 닮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려뽑은 기별’ 1권 244쪽에 화잇 부인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의 인성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묶는 황금사슬이다. 이것이 우리의 연구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참회하는 정신으로 배우는 자의 겸비한 태도를 가지고 이 문제를 연구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연구는 숨은 진리를 깊이 연구하는 자에게 보상을 주는 풍성한 결실의 밭이다” 라고 하셨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그리스도론에 관한 이해를 촉구하고 있다.

가짜를 분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짜를 아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류를 식별하는 가장 좋은 시금석은 진리를 아는 것이다.

요한의 시대로부터 마지막 시대인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못하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된 증인의 권고에 유의하여 오류의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야만 한다. 이런 의미에서 요한은 참된 그리스도론을 제시하고 이것과 반대되는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격함으로 신자들로 하여금 진리에 눈을 뜨게 하고 그 진리를 고수할 수 있게 하고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을 확신 있게 소개한다.

이러한 시금석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참된 것으로 인정하고 믿는 태도이다. 이것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라고 설명한다(1~6절). 그렇다면 왜 예수께서 성육신하셔야 하였을까? 우리는 여기서 잠깐 [성육신하신 이유]를 살펴보기로 하자.

[성육신하신 이유]

(1) 첫째는, 속죄제물이 되시기 위해서이다.

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For God so loved the world] "so loved" = ‘이와 같은 방법으로’ ⇒ 곧 우리와 같은 죄 있는 육신(타락한 본성)을 취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이처럼 사랑하” 시는데, 그 “이처럼” (so loved)은, 곧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랑하신다는 말이다. 또는 ‘이런 방법이 아니면 안 된다’ 는 말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이 짓되고 타락한 본성, 곧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롬 8:3) 단 한 번도 죄에 굴복하거나 참여하지 않으심으로 예수님이 죄를 이기신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삼는 자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나누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필자는 이 사실을 깨닫고 억제할 수 없는 감동으로 흐느껴 울었다. 이제는 이 사실이 필자의 생애를 주관하고 지배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고 있다. 여러분들도 이 구원의 능력을 붙잡지 않으려는가?

(2) 둘째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롬 8: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심으로 ‘예수님이 승리하신 방법으로’ 우리도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아바 아버지” 라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것이다. 이

것이 구원이다.

(3) 셋째는, 육신에 죄를 정하시려고

롬 8:3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in the likeness of sinful flesh) 육신에 죄를 정하사” (condemned sin in the flesh → condemned : 폐기처분하다, 격퇴하다)

이것이 성육신의 목적이다. 우리와 동일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것은 우리와 동일한 입장에서 육신 속에 죄를 쫓아내셔야만 마귀의 고소에 대한 정당성을 회복시키시며, 모든 연약한 인류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육신 속에 있는 죄를 격퇴시킴으로 구속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려는 것이다.

(4) 넷째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롬 8:4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침내 “믿어 순종케 하는 복음의 능력” (롬1:5; 16:25)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여기 있다!” (계 14:12)는 승리의 함성으로 대쟁투가 종결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을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라는 것이다.

롬 8:32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눅 22:20 성만찬 예식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최고의 증거는 우리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신 사건으로 확증된다(7~12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격려되어, 또 그 사랑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사랑에 반응하는 자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치를 경험하게 되고(16절), 또 하나님의 내주에 의해 그 사랑이 성취된다(12절).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동화된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진다(18절). 한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뚜렷한 증거는 받은 바 그 사랑을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입증되는 것이다(20, 21절).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들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을 실천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

V. 진리와 사랑과 믿음은 사림에 필수적임, 4:1~5:12

1.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 4:1~6

1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여기서 요한은 신자들로 하여금 당시에 일어났던 영들에 대해 경계하며 세심한 조사(시험)를 행할 것을 당부한다.

- (1) 경계 : 즉 “하나님의 영을 가장하는 모든 것들을 추종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을 가장하는 거짓 영이 있기 때문이다.”
- (2) 세심한 조사 : 즉 “성령에 속해 있다고 주장하는 것들을 시험하라.” 신자들에게는 영들을 분별하여 판단할 것이 허용된다. 우리의 이성

곧 영적인 분별력은 이러한 시험을 감당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속지 않기를 바라실 뿐 아니라 참된 영과 거짓 영을 분간하는 은사를 교회에 부여하신다(고전 12:10). 하나님의 신임을 가진 기별이라고 주장하는 교사들의 가르침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해야 한다(사 8:20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히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베뢰아 사람들은 즐거이 바울의 말을 경청하였으나, 그들은 그가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지 알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였다(행 17:11). 바울은 그의 다른 회심자들에게도 것처럼 하도록 조언하였다(살전 5:21). 그가 읽고 듣는 모든 것을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영감 받은 저술들의 기준에 적용하는 것이 모든 신자의 의무이다. 그렇게 할 때만 교회가 거짓교리의 침해에 저항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할 때만 모든 신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기초한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다(벧전 3:15).

[거짓 선지자를 식별하는 방법]

“이 마지막 위기의 때에 우리는 사람들이 진리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을 다 받아 들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교사들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기별을 가졌노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접근해올 때에 우리들은 조심스럽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겠는가? 라고 물어보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케 하리라” 고 하셨다. 그러나 우리가 속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의 시금석**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우리들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선지자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저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것은 그들 속에 빛이 없기 때문이다**” (흠정역)라고 하셨다.

이 말씀을 볼 때에 분명해지는 것은 어떤 것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맞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는 학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하셨다” (리뷰, 1892. 2. 23).

[옛 성도들에게 주어진 신앙을 옹호하라]

“미혹케 하는 것들이 많은 이런 시대에는 진리에 굳게 선 사람들은 누구나 옛 성도들에게 주어진 신앙을 옹호하기 위하여 투쟁해야 할 것이다. 사단은 그가 하는 신비한 일들 중에 다양한 모든 오류들을 가지고 들어올 것이다.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서 진리로부터 돌아서게 할 것이다.

거짓 꿈과 계시들이 있을 것이며, 그것들 중 얼마는 진리를 갖고 있겠지만 원초적 신앙에서 돌아서게 할 것이다. 주께서는 이들을 시험해 볼 수 있는 법칙을 우리에게 주셨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저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이는 그들 속에 빛이 없기 때문이다.” (흠정역) ✓그들이 만일 하나님의 율법을 작게 하고 성령의 증거들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들은 속이는 자들이다. 그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믿는 충동이나 인상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들을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욱 믿을 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모든 생각과 감정을 성령의 감동이라고 주장한다. 성경을 제쳐놓고 그들이 보다 더 믿을만한 것을 가졌노라고 선언한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그들은 사단이 역사해서 생긴 상상들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성경의 메아리, 1886. 9).

“꿈과 계시의 형태로 오는 것들을 모두 다 매우 열렬히 받아들이는 자

들은 빛에 치이지 않도록 삼가하라.” (원고 27, 1894).

2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사도 요한은 이러한 거짓 영들을 시험할 수 있는 일종의 시금석을 제시한다. 즉 그들은 교리로써 판별된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전파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그렇게 한다. 계시 종교의 요지는 그리스도와 그의 인격, 그의 사명에 관한 교리에서 파악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 중 어떤 이들은 말씀이 침례 때 인간 예수에게 임했다가 십자가 처형 전에 그분을 떠났다고 주장했으나 요한은 이를 반박한다. 세상 역사의 매 단계마다 강조해야 될 현대진리가 있었는데, 그 현대진리는 시대에 따라 변해 왔다. 오순절 후에 회심한 유대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기다리던 메시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었는데, 이는 문제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신성’이었기 때문이다. 얼마 후에 영지주의자들은 구주의 신성이 아닌 인성을 부인하였다. 그들은 신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그 자신들을 사람들에게 나타낸다는 것을 믿을 준비는 되어 있었으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부인하였다. 이처럼 요한 당대에 성육신에 대한 진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히브리서 연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본성과 성육신에 관한 진리를 성령으로 조명하였는데, 히브리서 1장에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히브리서 2장에서는 ‘완전한 인간이신 그리스도’의 본성에 관하여 영감 받은 성령의 능력으로 기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사도 요한 역시 요일 2:22에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하여, 요일 4:2에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하여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신자들에게 [참된 그리스도론]의 진리를 증거한다.

E.G. White 부인에게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본성]에 관한 이해는 그의 생애 전체를 사로잡는 명상의 주제였다. 그리하여 ‘시대의 소망’ 전체의 요지가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간을 위하여 태어나시고, 인간을 위하여 생애하시고, 인간을 위하여 죽으시고, 인간을 위하여 부활 승천하시며, 지상성소의 사역을 마치시고 그 끝없는 사랑이 하늘 지성소로 연결되어 인간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본성]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감동이 다시 ‘가려뽑은 기별’을 통하여 재연되고 있을 만큼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본성]은 인생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각 시대의 현대진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것이며,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 더욱 더 강조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은 어느 때보다도 더 기적적인 것들을 해명하려 하는 이 시대에 분명하게 증거되어야 한다(마 1:23; 눅 1:35).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늘의 모든 존재들을 동원하여 온 노력과 정력을 쏟아 붓고 있음을 우리 자신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우리는 성육신에 대해 개인적으로 잘 알아야 한다. **우리가 그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그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증거는 신성의 도움이 없이는 생겨날 수 없는데, 이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전 12:3).

여기서 “오신 것”이라는 동사는,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기 전에 존재했음을 암시한다. 헬라어 동사는 구주가 일시적으로 육체로 오고 그 후에 그것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가 여전히 신성 뿐 아니라 인성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인간의 대표자이며, 신격의 일원이기에 또한 신성의 대표자이기도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시인하는(헬: 호몰로게오, homologeo) :

- (1)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의 진리를 인정하는 것
- (2) 이 교리를 믿는 결과를 자신의 생애에서 드러내는 것

즉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의 교리를 지적으로 인정할 뿐 아니라 이 교리가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때 그것이 곧 진리를 시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고백하는 자는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유래를 증거 하는 것이다.

3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요한은 참된 교사와 거짓 교사를 분간하기 위한 시금석을 제시한다. 그것은 오직 두 부류-곧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을 시인하는 자와 부인하는 자-로써 규정된다. 대쟁투에서 중립지대는 없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인성의 기별을 듣고도 성육신의 가르침을 고의로 거절하고 반대한 자들은 그들이 아무리 참된 교사라고 자칭할지라도 그들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으며 그 지배 아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예수를 시인하지 않음이 적그리스도의 전형적인 특성이며, 동시에 적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영은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다.

4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사도는 신자들에게 승리의 소망을 주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 안에는 강한 보호자가 계시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고 계시며

그 영은 사람이나 마귀들보다 더욱 권능이 크시다. 하나님의 영은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도록 인도하셨다.’ 아버지와 의 친밀한 교제가 신자들로 거짓교사들의 교리를 거절할 수 있게 하였다. 그들은 그들에게 참된 지식을 주는 거룩한 기름부음을 이미 받았으며 (2:20,27), 이제는 이것으로 거짓에 대항하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내적인 이유를 강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신자 안에 거하시어(2:14; 3:24), 그를 어떤 적보다 강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 자신에게 상기시키며,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와 끊임없이 협력해야 한다.

♣ 사탄을 이기려면

여러 해 전의 일이다. 북극을 탐사하기 위해서
존 후랭크린 경이 인솔자가 되어 북극을 탐험하고 있었다.

영하 70도의 추위로 많은 사람들이 동상에 걸렸다.

게다가 추위로 잠에 빠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생겼다.

더러는 잠에 빠져 뿔뿔하게 얼어죽었다.

그럴 때마다 탐험장은 소리 질러서 말했다.

‘잠자지 말아라. 잠자면 죽는다!’

이렇게 경각심을 심어주며 대원들을 깨워서 살렸다고 한다.

마찬가지다. 우리도 잠자면 사탄에게 잡혀간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깨어 있을 수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즉 기도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우리의 영적 잠을 깨게 하는 방법이 없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도 말씀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영적 잠을 깨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다.

5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것으로, 사단은 그들의 기만적 가르침을 통해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지배권을 얻고자 한다.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을 대변하고 교회를 향한 기별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지라도, 그들의 영감의 원천은 사단이며 그들이 일하는 방식은 타락한 세상의 통치자(사단)을 대표한다. 따라서 세상이 그것과 하나 된 자들의 말을 쉽게 들으며,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그 기호에 매우 잘 맞음을 깨닫는 것은 과연 당연하다.

6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교사들과 하나님을 아는 자들 간에는 자연적인 교감이 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참된 교사들의 기별을 유의하여 들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만일 성령의 회심시키는 능력에 저항해 왔다면, 그는 하나님의 종의 말을 거절할 것이다. 그들은 성령을 물리쳤던 것처럼 그들도 거절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위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전 2:14). 그렇게 자신들이 행해 오던 것의 심각성을 알지 못한 채 진리에 대항하도록 기만당해 온 자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사단의 궤변에 익숙해진 나머지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지 못

하게 된 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삶이 그들이 전한 기별과 일치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증거 하는 것이며, 그들의 생애의 증거는 거짓 교사들의 오류에 기만당해 오던 자들의 마음을 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성령은 진리를 추구하도록 신자들을 자극하는 원천이다. “진리의 영” 이 성령이시라면, “미혹의 영” 은 사단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간주할 수 있다(롬 8:15). 인간을 지배 하는 영의 본질은 그가 하나님의 신임을 받은 종들의 가르침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의 여부로 식별할 수 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요 10:27)

2.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함, 4:7~21

7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알고

1~6절의 “진리의 영” 과 “오류의 영” 을 분별함에 대한 주제에서 갑자기 7절부터는 사랑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다른 주제로 전환한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는 사도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특성을 계속 적으로 소개 하고 있기 때문이다(2절).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는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에게 필요하지만, 그와 못지않게 사랑도 필수적임을 보여 준다. 성육신의 실제에 대한 시인이나 부인이 믿음의 영역에서 핵심 기준인 것처럼(2,3절), 참된 사랑의 존재나 부재도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성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과 미움의 영이 한 마음속에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곳의 “사랑하는 자들아” 는 KJV에서 “beloved” 곧 ‘사랑받은 자들아’ 로 번역할 수 있다. 이 구문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받은 자들아 다른 이를 사랑하자’ 로 번역되어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롬 5:8,10), 그와 같이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진리의 영은 사랑으로 분별된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이다.

8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 이심이라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거짓 된 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2:4,9; 3:6). 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3:10,11). 다시 말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있는 기본적인 특성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하나님이 영이시라’ (요 4:24)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 사실이 우리와 행복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한편 ‘하나님은 빛이시라’ (요일 1:5)는 사실 또한 지적으로 납득이 되지만, 모든 것에 순결하고 모든 것을 감찰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위안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움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죄인들의 형편이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어떤 선한 것을 찾을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라’ (요 4:24)는 것과 ‘하나님은 빛이시라’ (요일 1:5)는 사실은 영지주의 이단들도 믿고 가르치던 바였다. 반면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8절)는 사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거짓 교사들은 감히 언급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8절)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두려움 대신 신뢰심이 생기고, 우리에게 대한 감당할 수 없는 사랑 앞에서 무릎 꿇게 되는 것이며, 눈동자처럼 우리를 돌보시는 사랑 안에서 우리의 인생행로를 의지하고 맡기게 되는 것이다(벧전 5:7).

찰스 웨슬리(Charles Wesley)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 고백하

기를 “당신의 본성과 당신의 이름이 사랑임을 영원토록 증명할 것입니다” (the Oxford book of Christian, verse, 332)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생애 속에 이처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다.

선악간의 대쟁투의 역사에서, 참된 사랑이신 하나님은 진리와 사랑만을 사용하시는 반면, 사단은 교활한 거짓과 잔인한 폭력을 사용한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아들을 보내어 그의 지상생애와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죄와 죄의 권세로부터 사랑하시는 인류를 구속하시고 죄 없고 아픔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회복시키실 계획을 고안하신 것이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본성 때문에 놀라운 구속의 경륜은 성취될 것이다(요 3:16).

[사랑으로 일함]

“순수한 사랑은 단순하게 작용하고 다른 모든 행동 원칙과 구별된다. 그것이 세속적 동기와 이기적 관심과 섞여 있을 때 그 순수성을 잃고 만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하는 분량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가지고 일하느냐를 더 많이 생각하신다. 사랑은 하늘의 속성이다. 타고난 인간의 마음은 그것을 만들어 낼 수 없다. 이 하늘의 식물은 그리스도가 가장 높은 이름으로 균립하는 곳에서만 잘 자라도록 되어 있다. 사랑이 있는 곳에서는 생활에 힘이 있고, 진리가 있다. 사랑은 선을 행하며, 선 외에는 아무것도 행치 않는다.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열매를 맺어 거룩함에 이르고 마지막에는 영생에 이른다” (청년 지도자, 1898. 1. 13).

9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는 바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써 표현되었다. 여기서 “독생자”는 헬라어 ‘모노게네스’ (monogenes)인데, 이를 아

들에 적용하는 것은 요한의 글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서와 서신의 저자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구원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만나는 모든 시험을 정복하셨으며, 시험당하는 인간을 어떻게 도와줄지를 친히 아셔야 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 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 이다(요 3:16). 또한 “보내심은” 과거에 있었지만, 그 효과는 남아있으며, 더욱이 그 보낸 결과는 그리스도에게도 영원하다. 그는 우리들 중 하나로 남아있다(요 10:17). 이 보냄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려운 사명을 떠맡도록 명령하는 그런 보냄이 아니데, 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은 자발적이었기 때문이다(요 10:17,18). 그는 기꺼이 인간이 되어 죄인들을 위해 죽기로 하였다(시 40:8; 빌 2:5~8). **그리스도인들은 ‘저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바 되었으므로 ‘저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며, ‘저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을 붙잡을 수 있다.**

♣ 요한복음 3장 16절

믿음이 신실한 한 할머니가 어느 도시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있었다. 그런데 이 도시에 부모가 없는 고아 소년이 신문팔이를 하면서 눈보라 치는 거리를 걷는데 몹시 춥고 무척 굶주려 있었다.

그때 지나가는 경찰관을 붙들고

무얼 얻어먹고 몸을 녹일 수 있는 곳이 있는지를 물어 보았다.

그랬더니 경찰관은 유명한 예수 믿는 할머니 집을 소개하면서

그 집에 도착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누구냐"고 묻거든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대답해 보라고 했다.

그 소년은 가서 시키는 대로 초인종을 누르고 "요한복음 3장 16절"하니까 문이 열렸다. 소년은 생각하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은 "닫힌 문을 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후 문이 열리고 할머니는 소년의 얼어붙은 몸을 보고서 따뜻한 난롯가에 불을 켜라고 말했다. 몸을 다 녹인 다음에 고기 국물이 있는 좋은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것이 춥고 배고픈 것을 해결해 주는구나'라고 생각했다. 드디어 할머니는 성경을 들고 나오시더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으시면서 소년에게 이 구절의 뜻을 아느냐고 물었다.

소년은 대답하기를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사람들에게 닫힌 문을 열어 주고,
추운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더러운 사람을 깨끗케 하고,
피곤한 사람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할머니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것을 하신다.
그리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설명했다.

이래서 이 소년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전달되었다고 한다.

10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 (1) 롬 5:6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 (2) 롬 5: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하셨느니라"
- (3) 롬 5:10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불어 화목 되었은즉 화목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

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요한은 과연 사랑의 사도라 불릴 만큼 7절 이하~21절까지 ‘사랑’이라는 단어를 무려 30회나 사용하였다. 인간이 사랑을 알게 된 것은 인간이 범 죄 함으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 편에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과연 ‘사랑은 여기에 있다!’ 원문의 순서는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미국 인디언 중에 퀘추아(Quechua)족이 있는데 퀘추아 어로 성경이 번역되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아가페(사랑)'란 말을 번역하기 위하여 20자가 넘는 긴 낱말을 새로 만들어내야 했다. 'kuyapayariykusmaykichikpay'란 말인데 퀘추아 어로 '큰 공황을 몸으로 드러낸다.'라는 뜻이다.

♣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복음서가 가수며 찬송가 작가인 블리스는 젊었을 때,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라는 찬송을 썼다.

그러나 점점 나이가 들어 깨달은 것은 우리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버릇처럼 떠들던 것을 비교해 볼 때,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었던가 하는 점이였다.

그래서 그는 말년에 이르러 어린이들도 즐겨 부르고,

어른들에게도 은혜가 되는 호소력 있는 찬송을 다시 쓰게 되었다.

♪♪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 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11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가치 없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였다면, 우리도 우리 형제가 무가치해 보인다 해도 그를 사랑해야 하지 않겠는가?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악한 것보다 결코 더 악하지 않은 우리 형제를 사랑하기를 거절하는 것은 그가 결코 갚을 수 없었던 큰 빛을 탕감 받고도 나가서 적게 빛진 동료 중을 억압했던 배은망덕한 채무자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두는 것이다(마 18:24~25).

우리가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고(롬 12:10)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 생명을 내어놓는 데(요일 3:16) 더 가까이 이를수록, 더욱 더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며 우리의 사랑도 그분의 사랑처럼 온전해 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는 전 인격에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는 성품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다.

[회개한 죄인에게서 우러나온 사랑]

구주에 대한 요한의 사랑은 단순하고 인간적인 우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값진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받았음을 깨닫고 회개한 죄인에게서 우러나온 사랑이었다. 그는 주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일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다시없는 영광으로 생각하였다. 예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은 그를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하였다. 그의 신앙은 실질적인 품성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사랑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듭거듭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요일 4:11)고 하였다.”(성화된 생애 54)

[사랑과 연합]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영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들이 나타내는 속성들은 그리스도의 속성과 같지 아니하고 사단의 특성과 같다. 지금이야말로 신자들은 서로 멀찌감치 떨어져서 말과 행동으로 “나는 당신보다 거룩하오” 라고 표현하는 대신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영생을 위해 함께 애쓸 때이다. … 형제들은 우리의 자비하시고 충성되신 대제사장, 곧 우리의 연합함을 체휼하시는 분께서 나타내신 것과 동일한 정신을 나타내어야 한다. … **우리 자신의 틀리고 잘못된 생각하고 있는 의견, 우리 자신의 품성적 결함, 우리 자신의 작은 믿음 때문에 불가능하게 보였던 것들에 대해 우리는 승리를 거둘 수 있다.** 믿음! 우리는 진정 이것이 어떤 것인지 거의 알지 못하고 있다”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186,187).

♣ 사랑연습

미국의 역대 대통령 부인들 중에 국민의 존경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은 제4대 대통령 매디슨의 부인 돌리 매디슨(Dolly Madison)이었다.

한 번은 신문 기자가 질문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매디슨 부인은 가식이 아니라 정말 깜짝 놀라면서 대답했다.

“나는 내가 많은 존경을 받고 있다는 것은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습니다.

사랑이나 존경을 받으려고 해본 일도 없습니다.

단지 젊어서부터 혼자 노력하고 있는 것은

성경의 교훈을 따라 되도록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 보려고 힘쓰는 것뿐입니다.”

12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에(요 4:24) 아무도 그를 볼 수 없다. 설혹 그를 볼 수 있다 하여도 그를 보고서는 살 자가 없다(출 33:20).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로 제시한다. 하나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것으로 성육신하신 독생자를 통해 그를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1:18), 다른 하나는 본문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Stott). 이곳에서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을 지라도, 형제애를 실천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거하게 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그리스도인들의 형제 사랑은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된다. 형제들을 사랑하는 자들은 곧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것이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됨으로 마침내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구속하는 사랑의 역사가 신자의 변화된 삶에 온전히 실현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준 것과 동일한 사랑이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의 삶에서 재현되어진다. 이와 같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해 지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다.

요한은 **성품의 완전함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째는 2:5에 논의된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의 완전함’** 이었고, 다음은 4:12에 논의된 것과 같이 **‘형제애를 실천하는 자들의 완전함’** 을 언급한다.

믿음은 그 믿음이 역사함으로써 온전케 되며 사랑은 그 사랑이 작용함으로써 온전케 되는 것이다.

13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지의 여부는 그의 인도에 우리가 굴복하는 여하에 달려있다. 우리 구주께서는 그가 행한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허락하셨다(마 3:16; 4:1; 눅 4:18). 따라서 그분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말하거나 행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통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신다고 말할 수 있다(요 5:19,30; 14:10).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셨음을 주장할 수 있다(요 3:34). 지상에서 구주께서 생애하시는 동안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능을 주시기 위하여 성령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실 것이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의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심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14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요한은 계속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이유를 강조한다. 즉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9절에는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10절에서는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14절에서는 구주의 자격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반복하여 설명하는데, 그것은 이러한 구속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롯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요한은 친히 눈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 하나님의 진리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알고, 증거하며, 확신하고 있음을 또한 강조한다.

15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갈 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사람들 속에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은 모두 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이다.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사 우리들의 생활에서 의를 나타내라고 하신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생활화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만을 온전케 하실 것이다. 기쁨으로 자신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이라고 말할 수 있다” (원고 16, 1900).

우리의 매일의 생애 가운데서 ‘나’ 의 생각과 ‘하나님’ 의 뜻이 충돌할 때, 언제든지 ‘나’ 의 생각을 ‘하나님’ 의 뜻에 굴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것이며, 그것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내주하심에 의한 결과인 것이다.

16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in),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in) 거한다’ 는 표

현을 요한은 사랑한다. 4장에서만도 여러 번, 12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15절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할 때’, 16절에서는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in),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in) 거한다’ 고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다.

성화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실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데, 이는 그 안에서 작용한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을 성도로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누룩이 사람을 은혜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체험하고 목격한 자들에 의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알려지는 ‘산 편지’ 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역시 그리스도인 경험에 매우 중요한 것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야 하며, 또한 우리가 영생을 신뢰할 수 있으려면 먼저 놀라운 구속의 경륜의 신비를 배워야 한다. 그 위에 지식과 믿음 모두가 장성한 자의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도달할 것이다.

다음에 소개하는 호 11:4절의 말씀은 필자에게 놀라운 위로가 되었던 말씀이다. 필자의 심령이 여러 가지 생활고와 무거운 현실의 짐으로 압박을 당하여 짓눌려 있을 때에 주님께 하염없이 부르짖는 가운데 응답을 주신 위로의 말씀이다. 나처럼 혹 근심에 싸여 앞을 볼 수 없고 마음의 짐이 무거운 믿음의 형제들이 계시다면 나에게 주셨던 동일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리고 주님 밖에 가진 것이 없는, 남은 무리들이 져야 할 십자가의 길은 시련과 핍박과 고난의 장애물의 연속이겠지만 계1:15절에 묘사된 것처럼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아서 우리의 모든 시련의 풀무불 가운데 우리와 함께 연단되심으로 우리의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또한 간절히 당부한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면 충분하지 않은가!

[구주께서는 오직 나만을 위해 죽으셨음]

예수께서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그는 우리를 모두 이름대로 아신다. 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각 거주자의 이름을 아신다. 그는 때때로 그의 종들에게 당신의 한 마리 양을 찾으러 어떤 도시, 어떤 거리, 또 그 어떤 집으로 가도록 지시하신다.

각 영혼은 마치 그가 구주께서 위하여 죽으신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예수에게 잘 알려져 있다. 각 사람의 고민은 예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은 그의 귀에 들어간다. ... 예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고 말씀하신다. 그는 각 사람을 마치 이 지구 표면에 그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돌보신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고로 따라” 온다. 동방의 목자는 그의 양을 내몰지 않는다. 목자는 폭력이나 위협에 의지하지 않고 앞으로 가서 양들을 부른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부름에 순종한다. 이와 같이 구주이신 목자도 그의 양들을 그렇게 돌보신다. ...예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도다” 고 선언하셨다. 그는 아무에게도 그를 따르라고 강요하지 않으신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 다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신다(시 77:20; 렘 31:3; **호 11:4**)

♣ 사랑의 줄

생물학자 바스티언(S. L. Bastian)은 작은 나뭇가지나 덤불 속에 집을 짓고 사는 어떤 거미류를 관찰하면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이 거미는 나뭇가지나 덤불에 걸쳐 있는 울타리 속에 새끼들을 부화하는데,

만일 그 곳에 조금이라도 위험한 일이 발생해서 새끼들이 놀라게 되면 어느 순간 어미 거미가 쏜살같이 달려와서 새끼들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이 어미 거미가 어떻게 새끼들의 동요를 그렇게 금방 알아채는지
궁금해진 배스티언이 보다 주의를 기울여 살펴 본 결과,

이 거미가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새끼들의 잠재적 위험에 대비해서 경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즉 각 새끼 거미에게는 가는 비단줄 같은 것이 붙어 있고
이것이 어미의 몸에 연결되어 있는데, 새끼들이 적들의 위협을 받아
몸을 심하게 움직이면 그들의 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므로
어미가 즉시로 새끼들을 보호하려 달려올 수 있는 것이다.

호세아서 11장 4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서는 어미 거미가 명주처럼 보드라운 실로 자기 새끼들을
자기 곁에 두듯이 우리를 주님께로 밀접하게 이끄신다.

우리도 끊어질 수 없는 영원한 줄로써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위험과 곤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사랑의 줄'이 있으므로 즉각적으로

그 분의 관심을 받게 된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에 친히 동참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미처 알아채기도 전에 서둘러 도움을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히 매인 바 되었다는 사실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위안을 우리에게 준다.

17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찌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4:17~21에는 우리의 사랑을 두 측면, - 즉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17~19절)과 형제에 대한 사랑(20,21절)-의 두 측면에서 권면하고 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심판의 날을 맞을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심판의 표준이 율법이기에(약 2:12), 또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에(롬 13:10), 우리의 사랑을 온전케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심판 날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반응하여 살아온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성결한 삶을 추구하며, 또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분의 역사하시는 능력과 협력하여 살아왔기 때문에 재판장이신 그리스도와 대면하는 심판 날에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확신 가운데서 소망으로 바라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변함없이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먼저 이 세상에서 의롭게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의로워지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고 사랑 안에 거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함을 기억하자.

18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은 주의 사랑이 갖는 효력에 대해 설명한다. 즉 사랑을 온전히 이루면 심판 날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이루지 못하면 심판 날에 두려움과 형벌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 사이를 구별해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신앙의 본질로서 종종 언급되고 명령된다. 그러한 경외심은 완전한 사랑에 대한 완전한 반응으로 오는 숭경심이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불안으로 비롯되는 두려움은 공포로 나타나는데, 이는 죄책감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으므로 그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생애를 산다. 온전한 사랑은 고통, 즉 형벌을 내어 쫓는데, 그 이유는 온전히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간격이 없는 교통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는 아직 사랑이 온전한 데까지 이르지 못하였다고 설명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에(롬 5:6),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롬 5:8), 그리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롬 5:10),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호세아처럼 죄와 끊임없이 간음하는 음부된 우리를 끊임 없이 자신의 생명으로 사시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사랑으로 하늘 지성소에서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애간장이 녹도록 중보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는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은 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으며, 인간의 비방과 책락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주를 알게 되면서 그를 사랑하기 시작하며, 그렇게 되면 우리의 두려움은 강하고 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뇌리에 박힌 공포심으로부터, 나를 위하여 찢리신 나의 친구를 실망시키지 않고자 하는 “정결”(시 19:9)한 두려움으로 변화된다. 사랑 안에서 더 자라날수록, 우리는 덜 두려워한다. 우리의 사랑이 온전히 계발되고 모든 자아의 얽매임에서 자유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나 사람에 대한 비굴한 두려움이 없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기에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가 우리에게 최고의 유익이 되지 않을 것은 아

무것도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인생행로가 시련이나 위협으로 이끌릴 때마다 우리의 시련의 도가니에 함께 연단되시며 우리를 업고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이다.

롬 8:37~39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능력이다!!

사 43:1~3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यो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감소되지 않는 속죄의 희생의 효력]

“그리스도께서 하늘 법정에서 당신의 교회 곧 당신께서 보혈로 속전을 지불하신 이들을 위하여 탄원하고 계신다. 여러 세기나 여러 시대가 흐를 지라도 그분의 속죄의 희생의 효력을 감소시킬 수 없다. 생명이나 사망이나 높음이나 깊음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매우 단단히 붙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께서 우리를 매우 단단히 붙잡으셨기 때문이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 자신들의 노력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모든 약속의 배후에 계신 분에게 의존되어 있다. ... 우리가 그분과의 연합을 유지하는 한 아무도 그분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다” (사도행적, 552).

♣ 존 뉴턴 목사 이야기

마치 마태와 같이 포악한 노예 상인이었고 탕아였던

존 뉴턴 목사의 이야기이다.

존 뉴턴은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된 후 40여 년 동안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한 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아무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고 하지만 나 같은 노예상인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고 되뇌였으며, 문득 문득 과거의 죄가 떠오를 때에는 온 몸에 소름이 돋는 공포마저 들곤 했다. 그래서 그의 벽에다가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을 써 붙여 놓고 마음이 떨릴 때마다 읽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히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노라"

이 말씀을 가지고 그는 일생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용서받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으며 그는 82세 때에 한 말을 남겼다.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간다.

그러나 아마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면 세 번 놀랄 것이다.

처음엔 전혀 하나님 나라에 오리라고 기대하지 않던 사람들이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두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만나리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안 보이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세 번째는 존 뉴턴 노예 상인이었던

내가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 티테디오스

1세기의 초대 교회에서 기록된 크리스천 문서들을 찾아보면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리스도를 좇았던 많은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다.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티테디오스(Titedios)"라는 이름이

참 많이 있는 것이다.

티테디오스 존(요한), 티테디오스 바울, 티테디오스 알미니우스 등...

"티테디오스"라는 말은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그 사람들의 본 이름이 아니라, 이름 앞에 붙였던 하나의

별칭이었다. 예수님을 믿은 후, 그들의 삶이 변한 다음에 붙였던

하나의 애칭이었을 것이다.

초대 크리스천들이 왜 이런 이름을 많이 가졌는지,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버지이시며, 자기의 하나님인 것을 알았던

그 순간 그들은 그들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고

비로소 "염려에서의 해방"이라는 놀라운 삶을 비결을 얻었던 것이다.

당신의 문제는 무엇인가?

당신이 한 해 전에 부딪혔던 문제와 동일한 것인가?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이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라는 이름을 붙이시기 바란다.

"티테디오스 -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19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이 먼저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데서 출발한다(롬 5:6,8,10). 예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모아놓고 강론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 15:16)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출발이 어디

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버려진바 되었을 것이며 영원히 잃어버린바 되었을 것이다.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는 설교]

“그 사도(요한)의 생애는 자기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마음 가운데 타오르는 사랑은 동족, 특히 그리스도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을 위하여 참으로 열렬하고 지칠 줄 모르는 수고를 하도록 하였다. 그는 능력 있는 교사였으며 열성적이고 매우 진지했으며 그의 설교는 그들로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였다.” (성화된 생애54)

♣ 사랑의 시작

헬렌 켈러는 자기를 인간으로 만들어 준 위대한 교사 설리번 선생을
처음 만날 때를 회고하며 이렇게 썼다.

"1887년 3월 3일, 내가 일곱 살이 되기 세 달 전이었다.

나는 멍하니 현관에 서 있었다. 집안 분위기는 다른 날과 달랐다.

무엇인가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대들은 안개가 짙게 덮인 바다에서 배를 타보았는가?

나의 상태가 바로 그것이었다.

아무 것도 모르고 절망의 안개 속을 헤매고 있을 뿐이었다.

배가 항구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도 알리가 없었다.

나는 누군가 나에게 접근하고 있음을 느꼈다.

나는 무심코 두 팔을 내밀었다.

그러자 나의 몸은 그 분의 품속에 힘차게 끼어안졌다.

그 순간이 교육의 시작이었고 사랑의 시작이었다."

20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20,21절에서 요한은 사랑의 두 번째 측면인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에 대한 사랑’을 강조한다.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분명한 시금석을 제시한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소한 애정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더 고결한 목표에 도달하기를 바랄 수는 없다.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그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이며, 그는 하나님의 최고의 특성(4:8)인 사랑의 속성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요한은 우리가 더 적은 것 없이 더 큰 것을 가질 수 없을 뿐 아니라 더 큰 것 없이도 더 적은 것을 가질 수 없음을 논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둘 다 사랑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 보다는 사람에게 대한 우리의 태도로 더 쉽게 판별할 수 있다.

21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 지니라

사도는 그 형제를 미워함과 하나님을 사랑함이 양립할 수 없음을 보여 주었다(20절). 이곳에서 그는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실상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편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비록 이 성경구절이 인용된 형태의 계명은 없지만, 신 6:4,5과 레 19:18로부터 끌어온,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에 대한, 그리스도의 계명에 대한 정의(막 12:29~31)를 유추하여 결론을 내릴 수 있다.